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고흥군, 다양한 보건사업 초고령화 사회 극복 원천

### 치매조기검진 등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고흥군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를 주축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주민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다.

사회적 이슈이자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다. 고흥의 출산정책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전남 지자체 중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최초로 출산장려 관련 모바일 앱 출시로 산모와의 친근감을 유발하고, 출산육아용품 무료지원 및 대여하고 있어, 출산시책평가에서 전라남도 최우수기관상 및 시상금 10백만 원 수상했다.

또한, 2018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령인구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이 걷기지도자, 웃음치료사, 힐링명상지도자, 발마사지 등 4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윤택

하게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지개 이동 건강센터, 마을순회진료 등 10개 분야에 걸친 의료복지 종합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연인원 25,4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만성질환자, 치매, 우울증 의심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장, 부녀회장 등 202명을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마을지킴이로 위촉하여 금년 3월에 출범했다. 정신건강 마을지킴이의 활동으로 은둔형 주민 발굴, 홀로 사는 가구의 자살예방 활동 및 안부살피기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은 2018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치매고위험군 시범사업 추진 이후 돌봄 치료과정을 지원하면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펼쳐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건강증진시책추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수료식

### 미래 선진농업 이끌어 갈 정예 농업인 48명 배출

신안군은 지난 1일 제9기 슬로시티농업대학 수료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생 48명과 가족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군은 친환경 유기농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열정과 실천 의지가 강한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날 수료한 48명을 포함하여 총 51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제9기 슬로시티농업대학은 지난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친환경유기농, 친환경한우 2개 과정으로 1년 동안 학과별 100시간 이상 운영하였으며, 정원 58명중 83%인 48명이

수료하였다.

특히, 45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구제역 발생으로 슬로시티농업대학의 입학식이 1개월 지연되는 등 교육출석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1년간 개근한 학생이 11명에 달해 왕성한 교육열의를 과시했다.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우수상과 교육생 자치활동에 헌신한 2명의 학생에게 공로상을 수여 1년동안의 노고를 수료식에 담았다.

슬로시티농업대학은 전국 최고의 엄선된 강사진으로 구성, 평소 수강하기 어려웠던 수준높은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현장감 있는 교육과 국내외 선진농장 견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목을 넓히고 선진농업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슬로시티농업대학장 고길호 신안군수는 졸업 후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신안군의 미래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바쁜 영농활동과 어려운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열심히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줬다.

신안=박응식 기자

##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폰 활용 인권' 시범운영

###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장 목적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관수)은 최근 청소년활동 개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권'을 시범운영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함평 관내 중·고등학교

생 12명이 참여해 '왜 지금 여기서 인권인가, 인권의 성격, 나의 삶 나의 인권,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는 나의 삶,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내가 만든 인권 영화' 등을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형근(하

리고 2년) 학생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낯설어 프로그램 참여에 주저했는데,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인권 영상을 제작하면서 직접 체험해본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장성군, '청년 연어와 교감' 늘린다

### 유두석 군수, 청년농업인 50여명과 간담회 개최



장성군이 영농 유통주인 청년 연어'외의 소통의 폭을 넓힌다

장성군은 1일 농업인회관에서 유두석 군수와 청년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2017 청년농업인과의 소통 간담회 및 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행사는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청년농업인 사업 소개와 함께 농업분야 전문 공무원과 청년 농업인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하는 멘토링제 결연식이 진행됐다.

소통행사에 4H회원, 귀농인, 후계농, 승계농 등 민39세 이하 청년농업인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농업 전문가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가진 전문지도를 구성했으며, 같은 나이의 젊은 지도자들을 부(副) 멘토로 지정해 청년농업인들이 친근하게 멘토링을 받도록 했다.

멘토 대표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특강을 통해 "질제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에너지는 바로 젊은 농업인"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도전과 꿈이 장성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2018년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청년시업가 양성,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등 영농유망주를 위한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성군이 귀농귀촌지로 매력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전문 기술과 영농기술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게 현실"이라며 "미래 농업의 핵심 자원이 될 청년들이 장성을 도전의 땅으로 여길 수 있게 늘 소통하며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반병모 기자

## 보성군,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

### 보성농협 최종 선정, 경영안정 및 판로확대 기대

보성군은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위탁운영업체로 보성농협협동조합(조합장 문병안)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보성차생산지조합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영능력, 전문성, 상품개발능력, 재무상태, 국제화 능력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재정능력 및 녹차잡곡사업소의 우수한 운영성과 등이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아 위탁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보성농협은 지난 2008년 설립되어 전국 최대 규모의 녹차가공유통시설인 유통센터를 향후 5년간 위탁받아 차생업 수매, 차연관계 품 개발 및 생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HACCP 시설 리모델링, 차연관계품설비 도입 등 유통센터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판로 소규모 차재매출가의 경영안정 및 판로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녹차산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